산업통상자원부	보 도 자 료	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	
보도 일시	2022. 10. 20.(목) 11:00 < 10.21.(금) 조간 >	배포 일시	2022. 10. 20.(목)
담당 부서	통상협력국 중동아프리카통상과	책임자	과 장 김영윤 (044-203-5720)
		담당자	사무관 김태진 (044-203-5721)

통상교섭본부장, 오만 외교부 정무차관과 투자 확대 및 에너지 기반 시설 협력 강화 논의

□ '22.10.20.(목), 산업통상자원부(장관: 이창양) 안덕근 **통상교섭본부장**은 칼리파 빈 알리 알 하르시(Khalifa bin ali Al Harthy) **오만 외교부 정무차관**과 양국 간 **투자 및 에너지 기반 시설 확대, 재생에너지 및 그린 수소 협력 방안** 등에 대해 논의하고, **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**에 대한 오만 측 **지지**를 **당부**하였다.

□ 양측은 코로나-19에 따른 감소에도 불구하고, 양국 간 교역이 최근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, 올해는 **44.66억불**('22.9 기준)을 기록함으로써 **최근 5년간 최고 수준***을 **기록할 전망**이라고 평가하였다.

* 최근 5년간 총교역량(단위:백만불): ('17) 2,974 → ('18) 3,450 → ('19) 3,318 → ('20) 2,790 →('21) 3,389

○ 특히, **총교역량의 80%**를 **천연가스**가 **차지**할 만큼 양국 간 교역에서 **가스**의 **중요성**에 **공감**하고,

* 교역 현황('22.9): 수출 257백만불, 수입 4,209백만불(천연가스 3,601백만불)

○ 오만은 **한국의 제4위 액화천연가스(LNG) 공급국**이며, **한국**은 **오만의 최대 액화천연가스(LNG) 수출대상국**으로서 최근 국제 가스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양국 간 안정적인 **에너지 공급망 확보**의 **중요성**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였다.

* `21년 한국 수입 비중 : ①카타르(25%), ②호주(20.6%) ③미국(18.5%) **④오만(9.6%)**
* `21년 오만 수출 비중 : **①한국(44.2%)**, ②일본(18.3%) ③중국(15.5%)

○ 아울러, 에너지 및 기반 시설 중심의 양국 간 교역을 토대로 **재생에너지 및 그린 수소 등 신산업 분야**로 **협력**을 **확대**해나가기로 하였다.

□ 안 본부장은 우리 기업들이 **두쿰 정유 공장 사업과 해수 담수화 플랜트 사업 등에 참여***하고 있으며, **「오만 비전 2040」** 등 오만의 경제 및 사회발전 정책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면서,

* 두쿰 경제특구 내 정유공장 건설사업에 대우건설 및 삼성엔지니어링이 참여 중
바르카5 해수담수화 플랜트 건설 및 운영 사업을 GS이니마가 수주, '22.3월 착공

○ 가까운 시일 내 **'한-오만 경제공동위'** 를 개최하여 양국 간 주요 **투자 성과 창출 및 에너지 협력 강화**의 전기로 삼을 것을 제안하였다.

* (한)통상교섭본부장-(오)두쿰경제특구 청장이 수석대표로 '16.11월 5차 회의 이후 중단

□ 양측은 지난 '09년 중단된 이후 한국과 **걸프협력회의(GCC)** 양측의 노력으로 **'22.1월 10여년 만**에 **한-걸프협력회의(GCC) 자유무역협정 협상**을 **재개**한 후, **조기 타결**을 위해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점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는 한편,

○ **한-걸프협력회의(GCC)** 간 **자유무역협정**이 체결된다면 한국과 오만 간에도 경제·통상 관계를 뒷받침하는 **제도적 기반**으로 활용하면서, 양국 간 **무역·투자**가 **확대 발전**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.

□ 한편, 안 본부장은 우리나라는 **2030년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**를 통해 **세계 공통 위기**에 대한 **해결방안**과 **비전**을 **제시**할 계획이라고 밝히며,

○ **오만 외교부**가 **세계박람회 주무 부처**인 만큼, 「2030 부산엑스포」에서 한-오만 양측이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비전을 공유하길 바란다며 **오만 정부**의 **부산 지지**를 당부하였다.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